

〈6·25전쟁 유엔군 공식 전사자 수〉

전몰용사 4만896명 영전에 올리는 세계평화도시 남구의 작은 헌사



‘NEVER FORGET YOU ALL’ 어떤 내용 담았나

(그대들, 모두를 잊지 않겠습니다)

가죽들이 지면을 통해 안장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다. 참전용사 추모행사에서 전몰용사의 이름을 알릴이 부르는 ‘롤콜(호명식)’ 행사가 있는데 일종의 지상(紙上) 롤콜인 셈이다. 하지만 150명에 달하는 무명용사와 민간인 사망자 명단은 지면 사정으로 신지 못했다.

남구청 자체 인력으로 제작

유엔군 헌신에 감사 담겨

타블로이드판(일반신문 크기 절반) 20페이지로 발행된 ‘NEVER FORGET YOU ALL(그대들, 모두를 잊지 않겠습니다)’은 △유엔기념공원과 유엔 평화문화특구 소개 △유엔기념공원 안장자 명단 △유엔기념공원 합장자 및 사후안장자 현황 △유엔참전용사 특별기고 △22개 참전국 소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경비 절감과 감사에 대한 의미를 높이기 위해 제작을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구청 자체 인력으로 진행했다.

프론트 지면은 유엔기념공원 묘역을 배경으로 촬영한 ‘목각병정’ 사진과 함께 ‘코히마 비문’으로 유명한 구절 ‘FOR YOUR TOMORROW, WE GAVE OUR TODAY(당신들의 내일을 위해, 우리의 오늘을 바쳤노라)’를 제목으로 다뤘다. 목각병정은 지난 2001년 6·25발발 50주년을 맞아 남구가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개발비를 댄 6·25 에니메이션 ‘목각병정 이야기’의 메인 캐릭터이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대목은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2297명의 전몰용사 명단이다. 8개면에 걸쳐 게재했다. 명단은 이름 외에 계급, 소속부대, 사망일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담아 동료 참전용사나 유

전쟁고아의 아버지로 청송된 미국의 리처드 윌트 컴 장군과 사후 안장자 및 합장묘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이들 소식은 국내에는 언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전해졌지만 유엔군 참전용사 사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위트컴 장군은 전쟁 당시 미군 제2군수사령관으로 복무했고 전쟁 이후 한국 재건에 일생을 바친 인물로 1982년 사망할 때 유언에 따라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었다. 지난해 부인 한 모속 여사가 별세해 장군의 묘소 옆에서 영면을 취하고 있다.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지닌 참전용사들의 기고문도 감동적이었다는 호평을 얻었다. 특히 틴투워드 부산 행사를 처음 제안해 세계적 행사로 발전시킨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씨는 칼럼을 통해 스무해 이상 한국군 참전용사 알리기에 노력한 사연을 신문기자 출신답게 감동적인 문제로 풀어냈다. 유엔기념공원에는 함께 싸우다 숨진 그의 전우 12명이 안식을 취하고 있다.

또 2년 6개월간 시신수습업으로 복무하며 90명이 넘는 주검을 수습한 영국군 참전용사 제임스 그론

디씨는 ‘소년으로 왔다가 사나이가 되어 돌아갔다’는 칼럼을 통해 동료 참전용사와 유족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현재 말기암 판정을 받은 그론디씨는 유엔기념공원 사후 안장을 허락 받은 상태다.

유엔기념공원 안장자 명단

공원 조성 이후 최초 공개

신문 계기 기록화작업 필요

#영자신문 향한 뜨거운 반응

유엔군 전몰용사와 유족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기획된 이번 영자신문은 영문 2000부, 같은 내용의 국문 2000부 등 모두 4000부를 발행했다. 이중 절반인 2000부를 틴투워드부산 행사장에서 참전용사,

유족, 외교사절, 외국 관광객 및 한국인 참가자들에게 배포했다.

신문을 접한 독자 상당수는 국가보훈처나 외교부 심지어 국내 유수 언론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기초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신문을 접한 커트니씨는 “이번 신문 발행은 저널리즘 역사의 업적이자 남구청 공무원과 한국인들이 전몰 및 생존 유엔참전용사들에게 보여준 최대의 예우”라며 감격했다. 미국 경제지 언론인 출신인 그는 영자신문 PDF를 자신이 아는 해외참전용사 단체와 주요 기관에 전자메일로 전파하고 있다.

부경군대사료연구소 김학근 소장은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2297명의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유엔묘지 조성 이후 처음”이라며 “신문 발행을 1회에 그칠 게 아니라 책자 형태로 재발간하는 기록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남구는 신문을 미국, 영국 등 국내 주재 22개 참전국 대사관에 우편으로 보냈고 해외 참전용사협회 등에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11일 열린 틴투워드부산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과 부산시민이 줄을 서서 남구가 발행한 영자신문을 받아 가고 있다.

‘틴투워드부산’ 제안자 빈센트 커트니씨가 보내 온 편지

“신문 발행 남구청에 깊이 감사” 노병의 눈물

남구청 공직자와 주민 여러분,

남구청이 올해 틴투워드부산 행사에 배부한 놀랍고 기념비적인 영자신문(NEVER FORGET YOU ALL)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며 이는 저널리즘과 역사의 큰 업적입니다. 몇 페이지를 읽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구청장의 노력과 훌륭한 성과에 감명 받았습니다. 마지막 칼럼(죽기 전에 가봐야 할 1001곳에 유엔기념공원을 추천합니다)에 특히 감동 받았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만감이 교차해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물로 삼아 전 세계 한국전쟁 유엔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훌륭한 신문을 발행해 준 남구청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신문은 유엔기념공원과 전사한 유엔군 그리고 한국인들의 온정과 감사, 엄숙한 존경에 관해서도 대단히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전사자 2297명의 모든 이름 철자가 정확하고



각 국가별로 그들의 부대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특히 감명 받았습니다. 남구청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 신문을 늘 보관할 생각입니다. 신문은 1950~1953년 한국전쟁 시기에 한국에 파병 온 외국 군인들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인들이 유엔군의 희생을 어떻게 고마워하고 존경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구 주민과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의 유엔군 전몰용사에 대한 추모와 헌신이 담겨 있는 이번 신문은 한국전쟁 생존자들에 대한 값진 보상이며 전몰용사와 유엔기념공원 안장자에 대한 고귀한 헌사입니다.

빈센트 커트니 올림

Dear The Officials and Residents of the Nam-Gu district

I have now read completely the wonderful men you published and distributed at it Toward Busan service in Busan. It is indeed a marvel, an excellent work of jour Several pages brought tears to n ed with the publication and by you excellent work. I was moved by the page. It is s sensitive, so well twon treasure it and pass it along to many Korean We

Thank you so much about the remembrance. oldiers who served, all who fi

warmth, gratitude and solemn respect of the ple.

I am d to see all of the nam rectly, with their units identi tion. You have done wonderful work. The should be kept for all time. It surely tells the story of the soldiers fr who came to Korea in the 1950~1953 w eople, per story of ho and hold dear their pe

부산대연음식나라조리학원
국비지원 개강모집안내
〈국가지원으로 자격증 취득하실 분 모집합니다〉

과정명	구분	개강일정
한식조리기능사 및 급식조리실무과정	구직자	선착순 5명 모집
양식조리기능사 및 양식조리실무과정	구직자	
한식,중식조리기능사 취득과정	구직자	
소자본창업양성과정	구직자	
일식조리기능사 및 생선회양성과정	구직자	
한식조리기능사 취득과정	군로자개인	군로자개인
소자본창업양성과정	군로자개인	

자세한 사항은 교무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교무과 051.628.6464

도토리 갈아드립니다
미숫가루, 선식 찌서 해드립니다
고추장 담아드립니다

since 1971

취급품목
참기름, 들기름, 고추, 깨, 찹쌀엿 고추장, 간장, 된장, 소금, 쌀, 잡곡, 진도음료, 아마씨, 귀리, 마늘, 생강, 각종 차(보리, 옥수수, 결명자, 동글레 등)

주문·배달 환영 / 4계절 장 담아드립니다

과일나라, 못골 건강원 옆
☎621-8115 **못골시장 형제상회**

어머니 학생 모집

어머니 **중학생** (2년 졸업)

국가지원 무상교육

영어 ABC를 몰라도~
모든 과목을 누구나 알기 쉽게 수업
위치 : 당감동(무료 통학버스)

부산미용고등학교 병설 중·고등학교
문의 : (051)805-6131 ~ 4

김스골프 특별할인 이벤트!

선착순 30분만 정중히 모집니다

- 연회비 780,000원(월 65,000원)
- 6개월 450,000원(월 75,000원)
- 3개월 330,000원 > 시타 1박스, 연습시간 제한 없음

프로레슨 특가(KPGA 회원)
3개월 600,000원(회비포함) ※ 3개월 추가시 550,000원

연회원 등록시 1개월 레슨 무료 / 실외 45타석(그립교환합니다)

상 담 625-3400 / 010-5920-3152
김스골프연습장(문화회관 부근 대호 레포츠 맞은편)

국제·국내 결혼전문회사

중매전문 궁합전문

아기는 나라의 보배!!! 가정의 보배!!!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결혼은 필수조건

남, 여가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면
신의축복을 받아 아기가 탄생합니다.
세계 최저 출산국의 탈출은 결혼이 정답입니다.

14년 전에 500명의 보배 탄생을 목표로 결혼정보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국국의 일원으로 적극 동참해주세요.
참여하는 당신의 앞날에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국제등록번호: 동래-17-0001호 국내등록번호: 동래-17-0003호
스마트폰에서 '진성코리아 결혼'을 찾아보세요

대표전화: 555-1368 연중무휴 상담전화: 010-4550-3085
위치: 지하철1호선 동래역 1번 출구 건너편 유료광고

James. K. 누구나 쉽고 빠르게 말하는 영어

-모집대상(성인 및 어머니)
○ ABC 왕초보 영어 <숙성반>
○ 여행영어 <숙성반>
○ 기초가 없어도 OK

강사 통역 중

★ 개인 및 그룹(3명 이내) ★ 배짱영어(네이버 밴드)
늦었다는 생각은 인생의 포기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용기를!

위치 : 대연동 대연성당 후문 앞 T. 010-4564-2972